

종합·해설

“한미FTA 협상 졸속 아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 인사 청문회서 밝혀
일부 의원들, 부동산대책·마늘협상 추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찬반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내부의 대립이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전면화되고 있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회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지명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어 한미 FTA에 대한 소신과 국정철학, 정책관, 재산형성 과정,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는 특히 위원들이 소속 정파의 입장 또는 개인적 소신에 따라 찬반 양분으로 극명히 갈리면서 참여한 논리공방을 전개, 'FTA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원칙적 찬성 기조 속에서 정부가 막판까지 국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은 협상중단 또

는 유보를 주장했다. 우리당 소속 홍미영 의원이 협상의 차기정부 이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FTA는 장기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정부의 준비소홀과 홍보부족으로 인해 협상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우리당 김명자의원은 “우리가 FTA 체결에서 뒤진다면 외국의 FTA 체결 대체속에서 간접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협상결과를 보면 미국측 입장이 반영된 내용이 더 많을 뿐더러 국내 법과 제도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미국측 협상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타결하기보다 협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지명자가

경제부총리로 재직중이던 8·31 부동산 대책의 실패 논란 ▲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대처 과정 ▲불(不)정책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지명자는 답변에서 “한미 FTA는 2000년부터 한미 경제간 협의가 시작됐으며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준비가 없이 졸속 추진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지명자는 또 “쌀이 (개방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폐지될 것”이라며 “FTA로 인해 농가에서 수입에 비해 소득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 거의 전부를 정부가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명자는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시장의 여건상 수요, 관리, 공급 대책, 서민의 주거 안정을 추진했으나 공급 쪽에서 부족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80억 횡령 美 도주 ‘김경준 사건’
李 ‘검증’ 공방 새 불씨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측이 최근 후보검증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김경준 사건’이 검증논란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할 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측이 지난 26일 법무부에 음서 납뎌추조리사 사건과 관련해 송환 요청을 해놓은 김경준씨의 국내 송환 및 인도를 위해 검찰이 기울인 노력과 경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기 때문. 김씨는 지난 2000년 음서납뎌추조리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1년 회사돈 380여억원을 빼내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은 김씨에 대해 공금횡령 등의 혐의와 고발했고, 검찰은 2004년 1월 미국 정부에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김씨의 국내 송환을 요구했으며 이후 미 연방경찰은 김씨를 긴급 체포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목할 점은 김씨가 공금횡령 사건 이전인 2000년 당시 이 전 시장과 동업해 'LK이벤트'라는 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김씨가 국내에 송환돼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 내 시장과 관련한 언급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보여 그 내용 여하에 따라 당 경선은 물론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다소 섬뜩한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김씨 관련 자료를 요구한 주성영 의원이 이 전 시장과 친하게 경쟁하고 있는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박(親朴·친 박근혜)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요구가 당내 검증 공방 '2라운드'의 서막을 알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김씨가 이 전 시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는 한국제 미국 변호사 B씨의 친동생이라는 점에서도 그 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권, FTA 찬반 논란 격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FTA 찬성기류가 강한 한나라당은 협상단계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범여권 의원들의 단식을 '쇼'라고 비판하면서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표면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협상을 진행해달라는 원칙론을 견지했지만 김근태·전정환·임종인 의원은 단식 행군을 이어가면서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등 내부적으로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전여욱 최고위원은 “법무장관까지 자네 분이 단식장에 불법 시설물인 텐트를 두 개나 쳐놓고 쇼를 벌이고 있다”며 “정수기에 난방기까지 갖추고 모든 시설을 완벽히 갖췄는데 봄맞이 MT 단식, 쇼쇼쇼 단식, 대선캠프 단식을 당장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반면 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전주에서 지역기자 간담회를 갖고 “협상 결과가 나오면 국가적 차원에서 손익 계산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준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쌀 개방이라든지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국회 비준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어제 한나라당 FTA결핵대책특위위원장 명의로 몇가지 원칙을 천명했는데 우리당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베끼고 ‘쇼’”이라며 “의원들의 단식을 보고 ‘쇼당’이라고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결국 우리당을 बे끼는 ‘생쇼’를 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도의회 김창남·이기병 의원
FTA 반대 식발 단식 농성

전남도의회 김창남(장흥) 부의장과 이기병(나주) 의원이 2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식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종 협상일을 하루 앞둔 현재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저자세로 협상을 임하고 있다”며 “가장 피해가 큰 농어업 부문

에 대한 대안이 없이 추진하고 있는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끝내 협정을 체결하면 쌀시장마저 무너져 농업 생산액이 7조원 내지 9조원이 줄어들어 농촌사회는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다”이라며 “특히 농도의 전남은 농촌사회 붕괴와 농민들로 엄청난 공황상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에 ▲FTA 협상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 ▲협정 조안과 1, 2차 협상 진행 정보 공개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 등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강재섭-이재오 충돌... 경선변수 부상

강 “캠프 참여자 당직 사퇴”
이 “차 대리인 먼저 사퇴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이재오 최고위원간의 해묵은 앙금이 또 다시 표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빅2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치 앞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전대 투표 1, 2위인 두 사람의 충돌은 양측의 대치 전선에도 미묘한 파장을 드리우면서 경선국면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단은 강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당직자들의 대선후보 캠프 참

여를 강력히 경고하면서 시작했다. 그는 “당에 여러 당직자가 많다. 사무총장, 부총장, 정조위원장, 최고위원 등 이런 분들이 어떤 캠프의 일원으로 직책을 맡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사무처 요원들도 위치를 망각하고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인사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 대표의 언급을 전해들은 이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6·3 동지회’ 회장 자격으로 지방 행사에 참석중이던 이 최고위원은 “강 대표가 지난 전대과정에서 벌여 왔던 모양”이라며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말의 신뢰를 얻으려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第9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2006年12月31日現在) Table with columns for assets and liabilities, including categories like current assets, fixed assets, and equity.

第23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2006年12月31日現在) Table with columns for assets and liabilities, including categories like current assets, fixed assets, and equity.

第29期 決算公告 貸借對照表 (2006年12月31日現在) Table with columns for assets and liabilities, including categories like current assets, fixed assets, and equity.